뉴스디자인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트위터@byroselv

※ '클로저 이상용'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 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조훈범 원장

입 안 염증, 스트레스가 아닌 베체트병일 수 있어 주의

현대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질환을 이야기할 때 주된 원인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가운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다. 바로 입 속에 발생하는 구내염이다.

구내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자가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베체트병은 신체의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닌, 신체의 면역력 저하다. 그래서 이 증상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불리고 있다.

베체트병의 경우 구내염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음부궤양, 안구 증상, 관절염, 피부질환, 위장관, 중추신경계, 심장 및 폐 등 신체 여러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 하루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방적인 방법으로 치료

한의학에서는 베체트병을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에는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램 방법이 있다. 이 치료방법은 면역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화수음양단, 진수고, 면역봉독약침, 왕뜸치료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화수음양단과 진수고를 통해 신체 면역계의 바탕이 되는 신정을 보충하고 근본적인 면역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오장육부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해준다.

면역체계의 항진으로 나타나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즉각적인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해 면력봉독약침을 사용한다. 장기간 체내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환을 위해서 왕뜸치료를 실시한다.

초기 3개월(양약중단시기), 중기 3개월(양약중단적응기), 중기 3개월(면역회복기), 후기 3개월(면역정상화기) 총 1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해주어서 신체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 해준다. 양약과 한약치료가 끝나더라도 환자 스스로의 생활관리만으로 질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이지스한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혹시 베체트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지스한의원을 방문하여 정밀한 진단 후 효과적인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이지스한의원 조훈범 원장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졸업
본초 기미회 회장역임
경락학회 정회원
대한 형상학회 정회원
대한 약침학회 정회원
대한 한방 비만학회 정회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25일(화요일) 음력:10월 4일

쥐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파도, 우왕좌왕. 운세: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려라.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비바람, 힘들다. 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라.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라.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맑음, 권태롭다. 운세: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길방:중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밑바닥은 흐려도 위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겠다.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장마, 차일피일. 운세: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혼란. 운세: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한다.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랄 수 없다.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떳떳하지 못하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길방:서
재운코너	금일의 로또 구입처 행운방향(주거지 기준): 동, 북, 동북, 중앙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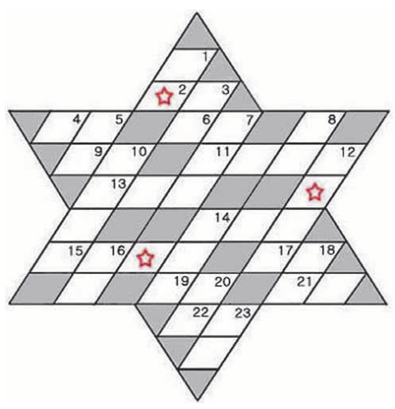
도원역리학회 도원학당 원장 ※영어상담 가능(02-812-1201~2)

강주현의 퍼즐월드

'Q미디어' 스마트폰 게임 즐기기. play 스토어-앱-인기무료-검색창에서, **경품낱말·난수표·야구스도쿠·오늘의 운세**를 쳐보세요. 게임 즐기고 경품받는 재미가 곁내줍니다. 02-493-5956 강주현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02-493-5956 강주현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 보세요



가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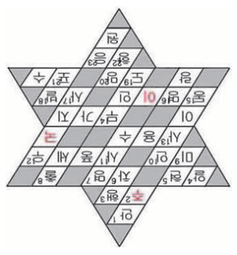
02.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달림.
04.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06. 남의 이름을 빌려 씀. 또는 그 이름
09.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11. 비껴 부는 바람과 가늘게 내리는 비. 'ㅇ풍ㅇ우' 13. 먹는 물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물.
14. 신문사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신문.
15.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
17.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19.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
21.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22.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세로 열쇠

01. 술을 마실 때에 곁들여 먹는 음식.
03. 웃어른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감. 또는 그때 이루는 대열.
05. 벼의 겉껍질만 벗겨 낸 쌀. 쓿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누르스름하다.
07. 총이나 활 따위를 잘 쏘는 사람.
08.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10. 관공서 · 회사 · 군대 등에서, 직원 · 사원 · 군인의 지위나 근무 부서를 바꾸는 일. 12.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14. 사람이 살지 않는 섬.
16. 유쾌하고 활발함.
18. 총이나 포를 쏨.
20.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함.
23. 운동 경기 등에서 선수들의 힘을 북돋우는 일.

■ 퍼즐정답

단어이어가기: 왼쪽 낱말을 모두 푼 다음 ☆칸의 글자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유머

닮았냥

대담함과 세심함

한 의과대학 교수가 첫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대담함과 세심함이다."

말을 마친 교수는 소변이 가득 담긴 컵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는 다시 입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소변이 든 컵을 학생들에게 건네며 학생들도 자신처럼 해보라고 지시했다. 주저하던 학생들이 하나 둘 손가락을 컵에 넣었다가 다시 입에 넣었다. 그리곤 모두들 구토를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모두들 아주 대담해. 하지만!"

교수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만 모두들 세심함이 부족한 게 아쉽군. 내가 컵에 넣은 건 둘째손가락이고 입 속에 넣은 건 셋째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학생이 하나도 없으니."

취미는 음악감상

한 총각이 맞선을 보게 됐다. 레스토랑엔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총각이 상대방 여성에게 물었다.

"저, 음악을 좋아 하신다죠?"

"예."

"주로 어떤 음악을?"

"클래식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럼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우아하게 돈가스를 썰던 아가씨는 멈칫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시선을 접시 쪽으로 내리며 말했다.

"돼지고기 아닌가요?"